

# 빈공방(Wiener Werkstaette) 직물디자인의 예술적 특성 연구

임영자 · 최옥수\*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영산대학교 패션디자인학부 교수\*

1903년에 설립된 오스트리아 빈공방은 총체 개념을 가진 호프만(Josef Hoffmann)을 중심으로 1910년경부터 직물파트를 설립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빈공방 직물디자인을 3단계로 나누어 그 조형성과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1기는 1903년부터 1910년까지로 핵심인물인 모저와 호프만은 세세선과 맥킨토시의 기하학적인 성향과 일본미술의 양식과 모티브에 영향을 받아 자연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양식화하여 간결한 문양디자인을 하였다. 2기는 1910년대로 호프만과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당시 예술사조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모티브와 기하학적인 조형과 단순화된 동식물의 조합, 다양한 기법, 색상들을 사용하여 밝고 선명하며 경쾌한 디자인을 하였다. 3기는 1920년대부터 1932년까지로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하추상적인 형태의 디자인이 생산되었는데 그것과 아울러 양식화된 꽃이나 풍경들을 기하학적인 요소들과 혼합 병치하였다.

의상파트는 옷이 예술작품의 일환이라는 총체예술개념으로 시작되었다. 빈공방에서 문양은 전체를 시각적으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의상에서 포인트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빈공방의 예술적이고 수공예로 제작된 직물로 된 의상은 상류층의 여성들에게 예술작품을 착용하였다는 선각자와 패션리더로서의 자부심을 주었다. 빈공방의 직물은 뵘와레(Paul Poiret)에게 의상에서의 직물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빈공방의 직물디자인의 성과는 첫째로 이 분야를 디자인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예술로 인정받게 하였다. 둘째로 예술가의 자유로운 발상과 능숙한 장인의 기술이 합쳐진 공동작업과 적극적인 마케팅전략, 적극적인 후원자들의 도움 통해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데 있다. 셋째로 풍부하고 활기찬 문양과 색상의 창조는 아르데코의 문양이 꽃피우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넷째로 직물디자인은 단순성 대담성이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를 예견한 선각자로서, 회화적인 요소가 예술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식문양으로 개발되어진 사례이면서 예술가들의 이념이 문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